

ANTI-FREEZE

이곳은 영웅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



세상 모든 '다름'이 어울리는 건강한 인간 생태계 만들어 나가기.
이곳은 세속적인 잣대가 만들어 낸 영웅 같은 건 필요하지 않은 세상!

그림: 이로우

ANTI-FREEZE

안티-프리즈

ANTI-FREEZE(안티-프리즈)는 ‘~을 방지하다’라는 뜻의 접두사 ‘anti-’와 ‘얼어붙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freeze’의 합성어이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과 자연 생태계가 단절 없이 동등한 상호작용을 계속하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매거진 『ANTI-FREEZE』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2023년 환경 + 예술 프로젝트 《ANTI-FREEZE: 얼어붙지 않을 거야!》와 연계하여 제작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관점에서 생태계를 이해하고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의 ‘생태 감수성’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향니, 「이곳은 영웅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 2014.

이지향(보컬, 신디사이저), 이준규(베이스)로 구성된 록 밴드 향니의 첫 정규 앨범 『첫사랑이 되어줘』의 마지막 수록곡이다. 속세의 기준이 만들어 내는 ‘영웅’들,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이들을 몰아내기에 급급한 지금의 사회는 무척이나 병들어 보인다. 「이곳은 영웅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에서 모든 ‘다름’들이 같은 눈높이에서 어울릴 수 있기를 바라며!

편집자 X 𐄂𐄂𐄂	3	시선 담기 II _타로인류학	13
여러분의 생태계는 ♥얼어붙지 않을 거야! ♥		달이 차오른다, 가자	
특집 기사	4	편집실 PLAYLIST	13
절망과 실패의 손을 잡고 춤을 추자		Vol4.이곳은 영웅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	
작가_피스오브피스	6	이유 있는 인터뷰	14
특별한 조각들이 퍼뜨리는 즐거운 연대!		정민씨요? 내가 아는 레인보우증 최고였어요	
시선 담기 I _턱피는여자들	10		
우리는 타인에게 내민 손이 엮어 만든 연약하고 질긴 성채 속에 산다.			
당연함이 상처가 될 때	12		
영화 <리틀 걸>			
오늘 이 계절의 레시피	12		
태국 현지보다 맛있는 참외쌈뎀			



표지이야기

조금씩 다른 모습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함께 거니는 풍경을 그려냈다. 작가 특유의 기묘하고 사랑스러운 생명체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변을 돌아보게 한다. 다함께 기묘하고도 사랑스럽게 세상을 행진해보자.

그림 이로우
INSTAGRAM @yirowooo

편집자 X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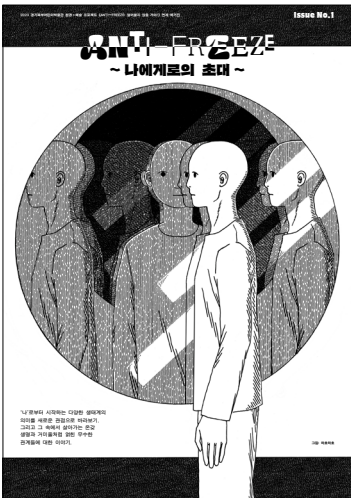
여러분의 생태계는 ♥얼어붙지 않을 거야! ♥

글: 강연섭(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사)

수많은 매체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빌려 쓰는 키워드, ‘생태계’. 직접적이든 은유적이든 ‘생태계’라는 단어가 쓰이는 맥락에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들이 포함된다. 다양, 협력, 공존, 영향, 경쟁, 소통, 공유, 확산 등. 이 의미들이 만들어 내는 현상을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요소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하는 물리적이거나 비가시적인 네트워크’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으며, 이때 이 네트워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상태여야 한다. 그래야 ‘생태계’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겠다.

2024년 3월 막을 내린 환경+예술 프로젝트 전시 《ANTI-FREEZE: 얼어붙지 않을 거야!》는 기후 위기를 체감하며 자연 생태계의 생물다양성보존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생태계라는 단어가 가진 무한한 범주와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의미를 찬찬히 훑아보면서, 결코 자연 - 인간과 같이 이분법적 경계를 지을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래서 전시와 별개로 ‘생태계’라는 키워드의 범주를 확장해 보고, 그 안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복잡다단한 이해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담은 게 바로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매거진, 『ANTI-FREEZE(안티-프리즈)』이다.

매거진은 1호부터 4호까지 각각 다른 관점과 범주로 생태계를 이해한다. 모든 생태계의 중심인 실존하는 ‘나’ 자신에 집중한 1호, 인간과 자연의 권력관계를 지우고 자연의 생명들과 진정 공존하기 위한 2호, 인간과 자연, 기술이 버무려진 미래의 신(新)-생태계인 ‘디지털(Digital) 생태계’의 모습을 상상해 본 3호, 그리고 마지막 4호는 다수의 기준으로 소수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사회에서 혐오와 비난을 멈추고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한 생태계의 모습을 바라고자 했다. 이렇게 언뜻 보면 1~4호가 전혀 다른 주제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호를 관통하며 독자들에게 묻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 나를 비롯한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불가침의 존엄성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1호



2호



3호



4호

약 10개월에 걸쳐 생태계 개념을 확장한 네 가지 주제로 매거진 발행 작업을 하며, 참으로 다양한 이들의 세상과 마주했다. 참여해 주신 필진과 작가들은 ‘생태계’라는 하나의 키워드에 각각 다른 관점을 부여하여 의미를 확장해 보고자 했던 안티-프리즈의 기획 의도를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었고, 서로의 생각을 가감 없이 나누었다. 또 자신들만의 우주가 담긴 흥미로운 작업물로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주거나, 때로는 내가 놓쳤던 무언가를 일깨워 주었다. 특히 마지막 호의 ‘이유 있는 인터뷰’에서는 매거진 안티-프리즈의 ‘편집자의 글’ 지면을 함께 나누었던 편집 디자이너이자 나의 생수는 영감의 원천인 김정민이라는 사람의 세상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유쾌함으로 무장한 그의 작업들에는 다양성과 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다. 편협한 사회적 기준이 만들어 낸 영웅은 필요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이번 호의 주제에 힘을 실어 준다. 이렇게 많은 이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일은 ‘나’라는 좁은 세계에 신선한 균열을 내어 준다. 그렇게 내 생태계의 모양은 마치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넓어진다. 그렇기에 편견 없이 다른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다.

이번 호 발행을 마지막으로, ‘생태계’라는 키워드는 끝이 났다. 하나의 주제를 이렇게나 끈질기게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했던 이유는, 한 가지 의미나 모습으로 정의되지 않는 생태계의 입체적인 모습을 짚어 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독자들 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생태계를 고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 편집자의 글을 마무리하며, 앞으로의 프로젝트가 어떠한 형태를 띠더라도 - 무겁거나 가볍거나, 미니멀하거나 스펙터클하거나, 직관적이거나 난해하거나 -, 기획자로서 역할과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계속해서 현상을 관찰하고 문제를 발견하면서도 대상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는 것 말이다. 이상으로 2023 환경+예술 프로젝트 <ANTI-FREEZE: 얼어붙지 않을 거야!>를 마친다. PEACE!

강연섭	INSTAGRAM @excitinglunch	김정민	INSTAGRAM @jminutemaid WEBSITE www.jminutemaid.com
이 프로젝트의 기획자이자 편집자 강연섭은 기술매체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아트에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 기획 일을 하고 있다. 기술매체를 연구해 세상을 인지하는 인간의 감각을 확장하는 아티스트들의 예술 활동에 특히 흥미가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인간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우주의 기운이 나를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으로 인도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당장은 작고 무해하고 에너지 넘치는 인간들과 손잡고 우리의 엔트로피를 무한히 높여 보기로 했다.		김정민은 건축을 기반으로 공간을 구축하는 작업을 포함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디자인을 시도하고 있다. 공간에 살아가는 주체들에 대해, 그 중에서도 공간이 없는 주체들의 공간에 관심이 많다. 이때 주체는 인간만을 상정하지는 않으며, 식물과 동물, 생물과 비생물, 건축과 자연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서울커뮤니케이션의 멤버로 2019년부터 활동하며 쿼이이슈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현재는 도시연구자로서 도시에 대해 연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근간으로 『즐거움 남의 집』이 있다.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 발행인: 유인택(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 편집인: 박종강(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장) | 기획: 강연섭 | 코디네이터: 조소정 | 책임편집: 강연섭, 김정민 | 글: 강연섭, 연혜원, 이지수, 이후석, 정수경, 진민섭 | 디자인: 김정민 | 표지 일러스트: 이로우 | 인쇄: 지구나무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 학예연구팀: 진수정(총괄, 학예연구팀장), 최혜경, 김호기, 김형준, 박준희 | 홍보: 문재원 | 기획운영팀: 문형순(기획운영팀장), 최동욱, 강병현, 심형률, 배윤주
시설지원: 이홍일, 박성모, 염준선, 이민형 | 전시운영: 박희정, 황수진, 유세정, 장정민, 이경아 | 안내: 김혜선, 장현주, 문효림, 김수연 | 미화: 엄현진, 임미경, 강옥란, 김윤

Copyright 2024.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All rights reserved.

이 간행물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2023 환경 + 예술 프로젝트 전시 《ANTI-FREEZE: 얼어붙지 않을 거야!》와 연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본 간행물에 실린 글과 사진 등은 자료 제공자 및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서면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홈페이지 <https://ngcm.ggcg.kr/> 에서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절망과 실패의 손을 잡고 춤을 추자

『ANTI-FREEZE(안티-프리즈)』 마지막 호 「이곳은 영웅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에서는 우리 곁의 모든 ‘다름’들이 존재 자체로 존중받으며 살아가길 바란다. 그 대상이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라면 더더욱 영웅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에서 그들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가 부단히 살피고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너무나 어린 나이에,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까지 세속적인 잣대로 비난받거나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히곤 한다. <투명가방끈>은 입시경쟁교육·학력학벌차별사회·대학중심주의 문화에 맞서 교육과 사회를 바꾸기 위해 활동하며, 나아가 모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목소리를 내는 단체이다. 투명가방끈이 말하는,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가 아니라, 용이 안 돼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과 그들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려면 모두의 용기와 변화가 필요하다.

글: 연혜원 (투명가방끈 활동가)

‘실패’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개념이다. 무언가에 ‘실패’했다는 말은 어떠한 과정을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고정해 버리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실패했다’는 진단은 어떤 임의적인 기준에 이탈하거나 미달한 순간을 포착해 낙인의 형태로 물화해 버린다. 누군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그의 인권은 마치 손상되는 것 같은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사실 인권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손상될 수 없으며, 삶은 어떤 것도 고정될 수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거나 이 사회로부터 실패자로 불린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점점 더 선택을 돌이킬 수 없는 사회가 되었다는 증명일지도 모른다.

생각해 보면 ‘청(소)년기’와 ‘실패’라는 개념은 함께 하기에는 모순적으로 느껴진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는 어떤 선택을 돌이킬 수 없다고 여겨지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가 아닌가? 하물며 노년이 되어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회에서 ‘실패한 청(소)년’이라는 말은 너무 이상하게 들린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에서 빈번하게 받아들여지는 감각이다. 청(소)년기에 벌써 어떠한 선택을 돌이킬 수 없다고 느낀다는 사실은 그만큼 가지고 태어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위치, 그러니까 부모가 가진 자산, 태어난 지역, 신체 등의 차이가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는 이를 보완하거나 지원해 주는 사회적 제도가 여실히 부족한 사회임을 말해준다.

한국에서 학교는 교육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지원해 주기보다 청소년을 줄 세워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실패’라는 이름을 붙이는 장소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하다. 그만큼 한국에서 학교라는 공간은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가혹하게 선별해 내는 공간이다. 한국의 학교는 지원보다 결과를 평가하는 데 집중해서, 이미 사회적으로 벌어져 있는 차이를 점수로 줄 세운다. 그리고 어떤 기준 이하를 ‘실패’로 이름 붙이기 수월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학교에서 실패 해 본 이들은 이 사회에서 취약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고, 그 취약함은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빈곤은 사람을 건강하지 않게 만들고, 건강하지 않으면 학교에 꾸준히 출석하는 게 어렵고, 그렇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좋은 일자리를 갖기가 어렵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또다시 빈곤해진다. 혹은, 한 청소년이 성 소수자로 자신을 정체화하면 학교에서 이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어렵고, 솔직하지 못하면 고립되기 쉽고, 그러면 학교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우면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고, 그러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 또 좋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그러면 빈곤에 놓이기 쉽고, 빈곤에 놓이면 그는 이제 성소수자이자 빈곤한 개인으로써 취약성이 교차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의 학교는 이렇게나 연결된 취약함이라는 굴레를 들여다보고 연대하기를 거부하고, 너무나 손쉽게, 결과가 안 좋은 것을 보니 그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결과만으로 뭉뚱그려 버린다. 그래서 ‘실패’라는 이름 아래에는 이 사회에서 정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취약한 성질들이 모여 있다.

심지어 지난 4월 26일,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는 입시회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직전인 4월 24일에는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었다. 청소년 인권에 대한 거대한 백래시의 물결이다. 해당 서울특별시의회의록에 이러한 발언이 나온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돌아해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서 불필요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왔고,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하게 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의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주범이 되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출처: 한겨레)

그러니까 의회는 여전히 사회적 소수자들의 취약함을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으로 만들어버리고, 학교 안에서 청소년의 취약함을 ‘특정 권리’로 오용해 견제해야 할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제는 취약함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대하고 배제해야 할 것으로 호도하고 있기까지 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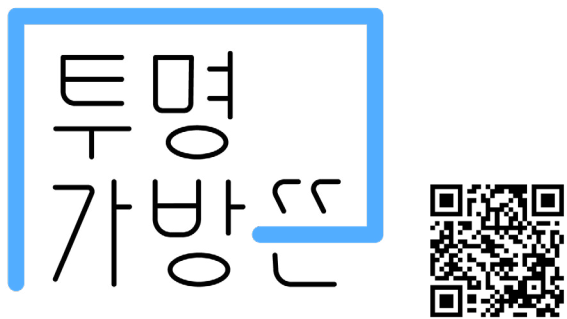
그래서 투명가방끈은 취약함에 지원을 해주기는 커녕 ‘실패’라고 이름 붙이는 학교에 저항하기 위해, 실패 아래에 모여 있는 취약한 자들과 함께 연대하기로 선택했다. 투명가방끈은 지난 2023년 수능 당일, <우리들의 실패, 실패자들의 연대 - “절망과 실패의 손을 잡고 춤을 추자”>라는 제목의 작은 축제를 열었다. 먼저 투명가방끈을 소개하자면, 2011년 대학/입시 거부 선언자들이 함께 만든 학력·학벌주의와 능력주의에 저항하는 인권운동단체이다. 투명가방끈을 있게 한 대학/입시 거부 선언이 왜 필요했냐고 묻는다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인간으로 존중받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 대학에 가지 않으면 다짜고짜 실패자라고 비난부터 하니까. 왜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손상처럼 되는 것일까? 왜 대학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회에서 이탈하고, 미달하는 것처럼 여겨질까?



2023 비진학자 가시화 주간 행사 (출처: 다다다협동조합)

대학을 졸업하려면 어마어마한 학비가 든다. 아마 일 년에 천만 원 정도? 그리고 수업을 들어야 하니까 생활비도 필요하다. 가족이 주거비를 대주지 않는다면 주거비도 따로 필요하다. 이게 벌써 얼마야! 이렇게 많은 돈이 없으면 대학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대학에 간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스무 살이 되면 당연히 대학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아마도 모두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 사회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한테만 좋은 일자리와 조직 안에서의 의사 결정권, 정치적인 권력 등등의 힘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사회적 힘을 평등하게 나눠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투명가방끈은 그래서, 이미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그 힘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래, 우리에게는 ‘연대’하는 힘이 있어! 좋은 대학을 졸업하면 힘이 생긴다는 성공 신화부터 함께 부수자!

그 마음이 ‘실패자’들과 함께 하는 축제를 상상하게 했다. 모두가 성공한 사람들을 찾는 시대에 실패자를 찾는 일, 실패자를 모집해 함께 춤을 추고 힘을 나눠서 더 큰 힘을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패, 실패자들의 연대 - “절망과 실패의 손을 잡고 춤을 추자”>였다. 투명가방끈은 해마다 수능일까지 일주일 ‘대학 비진학자 가시화 주간’으로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그 피날레인 수능 당일에 축제를 열었다. 수능일은 우리를 모두 점수화하여 일렬로 세우는 날이기도 하고, 수능을 보지 않는 사람들을 숨죽이게 하는 날이기도 하니까. 수능일이야말로 투명가방끈이 가장 시끄럽게 놀아야 하는 날인 것이다. 평등한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을 줄 세우기 위해 시험을 보는 날은 얼마나 반인권적인가.



연혜원
INSTAGRAM @una_now_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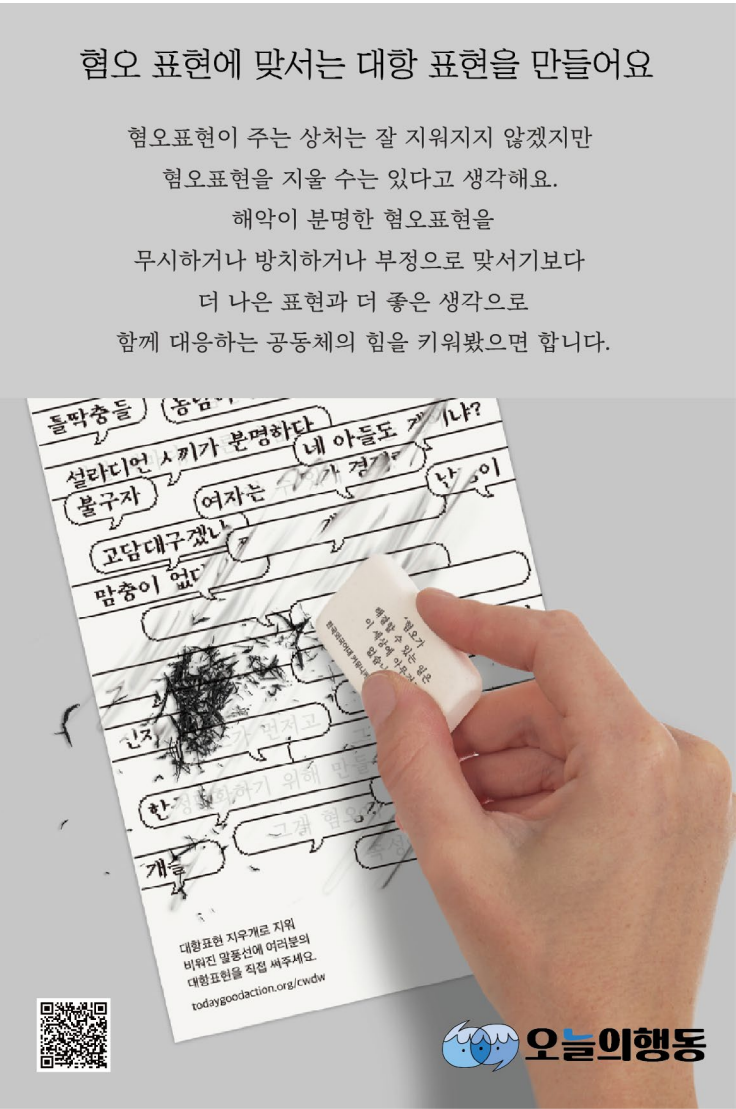
공립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를 연구하면서 학력주의에 맞서 함께 싸우기 위해 투명가방끈 활동가가 되었다. 주요 논문으로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공립고등학교 학생의 성인이행기 전략〉이 있다. 책 〈퀴어돌로지〉(2021)의 기획자이자 공저자이며, 퀴어예술매거진 〈them〉발행인이자, '한국퀴어언국어아카이브' 팀원이기도 하다. 퀴어 당사자로서 학교에서 찾지 못한 언어를 대중문화와 예술에서 찾았다. 연구자이자 활동가, 예술인으로서의 자아를 통합시키기 위한 큰 노력은 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 그 모든 것이 통합되는 순간을 만날 때 느끼는 즐거움이 있다. 현재 공립고등학교를 주제로 한 단행본을 준비 중이다.



2023 비진학자 가시화 주간 행사 (출처: 다다다협동조합)

축제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와서 나중에는 의자가 부족할 정도였다. 우리는 서로의 실패담을 들으면서 함께 웃고, 응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연대했다. 그리고 이 축제 밖에서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우리의 취약성을 드러내어도 공격받지 않을 수 있기를 기원하며 홀라춤을 추었다(비유가 아니라 정말 홀라춤을 추었다!). 수많은 삶에 실패라 이름 붙이는 일을 덜감 살아 성공을 과시하는 사회는 참으로 수치스럽다. 사회적인 힘을 나눠 가지지 않는 사회야말로 유일하게 실패라고 이름 붙여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투명가방끈은 ‘대학/입시 거부’에서 나아가 ‘대학 가기 실패’, ‘대학 졸업 실패’를 연결고리로 만나는 실패자 연대체를 눈덩이처럼 굴려 점점 더 키우는 꿈을 꾸다. 성공한 사람들이 더 큰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는데, 취약한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취약한 사람들이 서로 기댈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투명가방끈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고민을 나눌 것이다. 실패는 두렵지 않다. 우리는 이미 실패자들이니까!



광고이미지 제작: 이지수

특별한 조각들이 퍼뜨리는 즐거운 연대!

글/디자인: 이연우(피스오브피스)

『ANTI-FREEZE(안티-프리즈)』의 마지막 호, 「이곳은 영웅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에서 바라는 인간 구성원들의 사회적 생태계의 모습은 단순한 공존을 넘어 연대를 이룬다. '적정 예술 콜렉티브 피스오브피스(Piece of Peace)'의 활동과 작업은 언제나 실험적이고 재기발랄하고 다채롭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 주변을 살피고, 고민하고, 돌보는 마음. 피스오브피스로부터 즐거운 연대가 퍼져나간다.



피스오브피스(Piece of Peace)는 평화의 조각이란 뜻이다. 예술가, 문화 기획자, 제작자 등 창작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피스(조각)'가 되어 함께하며, 평화롭기 위한 고민을 예술 활동으로 표현한다. 그 고민에는 '자투리 순환', '사물 돌봄', '유기 사물', '제작 문화' 등이 있다. 이 키워드들의 공통점은 '물건'에 있는데, 피스오브피스는 물건을 직접 쓰고 닦고 조이고 보듬는 활동이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2022~현재

세계관 시리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와 기후위기로 몸살을 앓는 지구. 100년 후, 200년 후, 500년 후엔 어떤 모습일까? 세계관 시리즈는 환경을 주제로 피스오브피스가 상상한 미래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전시 등을 통해 펼쳐낸다.

- ① 백두산을 향해
- ② 플라스틱 트라이브
- ③ LET'S GO! 깡따삐야 : 지구별 대모험
- ④ 플라스틱 탐험대



2019~21'

자투리 잡화점

피스오브피스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자투리 잡화점은 2019년 문래동에 처음 문을 열었다. 창·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자재(재료)들이 무자비하게 버려지는 행태를 개선하고 자원순환 실천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상점이다. 쓸만하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애매하게 남겨진 재료들을 창·제작자들로부터 기부받고, 소량의 재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소분하여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2022년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문래동을 떠나게 되면서 지금은 문을 닫았다.

▲ 자투리 나무로 만든 자



서울 문래동

2022

① 백두산을 향해

2100년. 심각한 기후 위기로 해수면이 상승해 대부분의 나라가 잠겼고, 몇 시간 후엔 서울도 잠겨버릴 위기에 처해있다. 어느 한 장난감 가게에 모이게 된 난민들. 브리콜라주 정신으로 눈앞에 보이는 물건들을 활용해 캠핑카를 만들어 해발고도가 높은 백두산으로 향해야 한다. 이 수업은 중·고등학생 15~20명과 2시간 동안 함께했다. 참여자는 팀을 이루고 타카, 망치, 못, 드릴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동안 자신들이 타고 떠날 캠핑카를 만들었다.

브리콜라주란?
다양한 일을 능숙하게 수행하나 한정된 자료와 용구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

2022 ② 플라스틱 트라이브

2222년. 해수면에 잠겨버린 지구를 떠나 화성에 정착한 인류. 하지만 어느새 화성도 포화상태가 되어,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렀다. 다시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정예 요원으로 꾸려진 '퓨처 스카우트'. 땅은 보이지 않지만, 플라스틱 아일랜드를 발견해 그곳에서 8주 동안 생존하며 방법을 모색한다는 이야기다. 집을 지어보거나 화분을 만들어 작물을 키우는 등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을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들어보는 창·제작 수업을 진행했다. 이 수업은 중·고등학생 12명과 8주간 함께했다.



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플라스틱 아일랜드?

작가_피스오브피스

2020~21'

메이커스 연-장 도서관

가끔 필요하거나 개인이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공구를 대여해주는 공유 공간을 운영했다. 새로운 물건을 사기 보다는 해지거나 망가진 물건을 고쳐 쓰도록 하여 소비 문화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고자 시작했다. 지역민과 함께 제작 문화를 향유하고 이를 통해 연대할 기회가 되길 바랐다. 자투리 잡화점과 마찬가지로 2022년에 문을 닫았다.



서울 문래동

2020~현재

서울아까워센터

거리를 걷다 보면 폐기되거던 너무 아까운 물건들이 사망 선고라도 받은 양 딱지를 단 채 버려져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조금만 쓸고 닦고 보듬으면 충분히 재사용 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이들을 '유기 사물'이라 칭하고 구출하기로 결심했다. 일종의 퍼포먼스 예술이자 환경을 위한 행동이다. 거리는 무대고 지나가는 시민은 관람객이 되어 서울아까워센터가 유기 사물을 수리, 청소, 리디자인 하고 도주하는 것을 관람한다. 물건을 쉽게 버리는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과 적은 확률일지라도 유기 사물을 구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2020년 처음 길거리에 나섰고, 그 이후로는 지역을 넓히거나 문화예술교육 형태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세계



2022~23'

③ LET'S GO! 깡따삐야 : 지구별 대모험

22xx년. 안드로메다를 연구하던 바람개비 은하의 깡따삐야 별 박사들이 지구에 불시착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우주선이 망가져 지구 생명체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이미 인류는 멸종하고 플라스틱 쓰레기와 바닷물만 가득한 지구를 마주한 박사들. 하는 수 없이 지구 쓰레기를 활용해 우주선을 만들어 자신들의 별로 돌아가야 한다. 참여자는 못, 드릴, 테이프 등 손 도구를



사용하여 플라스틱과 장난감 쓰레기를 재료로 우주선을 완성했다. 완성된 우주선은 수업을 진행한 경기북부어린이 박물관의 나선형 복도에서 레이싱하며 마무리했다. 이 수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주간 진행했으며, 결과물은 박물관에 약 5개월간 전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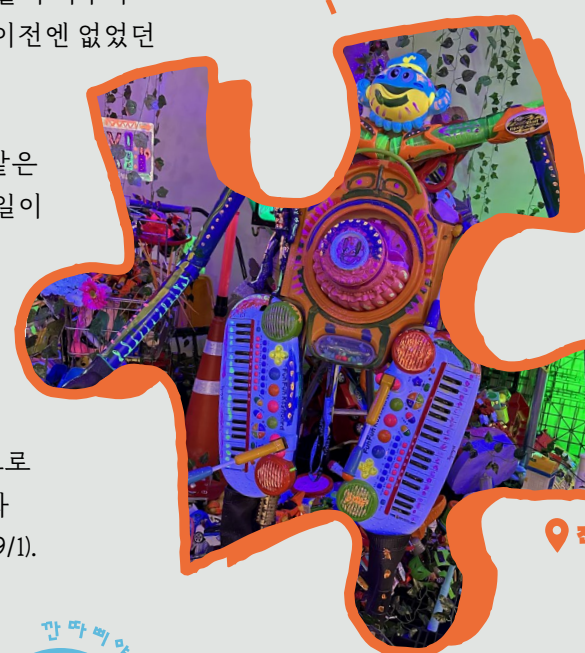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2023~현재

④ 플라스틱 정글 탐험대

2523년. 해수면에 잠긴지 어느덧 몇백 년이 흘러 지구가 회복해 가고 있을 때쯤, 한반도 어딘가에서 이전엔 없었던 돌연변이들이 발견된다. 플라스틱과 기계로 이뤄진 생물체. 불과 몇백 년 만에 변이를 일으킨 것도 놀라운데, 플라스틱과 같은 인공물질이 생명체가 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쓰레기로 뒤덮인 세상에서 차선을 택하며 진화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지구를 그린 <플라스틱 정글 탐험대>는 폐장난감을 주재료로 하여 어린이 전시로 연출되었다. '시립반석산에코 스쿨'에서의 전시를 시작으로 '서울생활용플라자'를 거쳐 지금은 '용인문화 도시플랫폼 공생광장'에서 전시되고 있다(-9/1).



전국

2021, 서울아까워캠프 @영등포구 임대



2022, 서울아까워클리닉 @서울 문래동



2023, 광주아까워센터 @전라도 광주 임대



광주 아까워 센터



2023, Noisy Trash @서울 공항동

특별한 조각들이 퍼뜨리는 즐거운 연대!



조각 **천근성** (작가, 피스오브피스 대표)

재미와 의미를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은 시각예술가.
‘예술이 사회 문제 해결에 별난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신념하에 설치·영상·퍼포먼스·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각지대의 공간, 사물, 사람들을 예술 안에 배치하고 조명하면서 환대하고자 한다. 주요 작업으로는 《안녕 배달》, 《서울아까워센타》, 《이웃집홈리스》 등이 있으며, 적정예술그룹 피스오브피스 대표를 맡고 있다.

조각 **김한솔** (작가)

조각 **이연옥/노랑** (작가, 기획자, 디자이너)

동물권, 환경, 지역, 언어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다. 표현 방법이나 매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통로로 작업하다 보니 시각예술가, 창작자, 디자이너, 기획자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책’의 형태로 작업물을 내는 것을 좋아해 《가지가지도감》, 《장롱다방:대화집》, 《방산어사전》, 《찾아봐요! 북작북작 : 서울에 사는 동물들》 등 지금까지 총 9권의 책을 출간했다. 피스오브피스에서는 기획과 디자인을 맡아 활동하며 개인적으로는 출판과 디자인을 하는 인쇄매체그룹 해방해방을 운영하고 있다.

조각 **유흥주** (작가)

조각 **박상현** (문화기획자)

조각 **김강현** (작가)

& MORE...

조각'들'의 일-프 인터뷰

노랑 서울아까워센타가 사실 ‘반려 사물’이란 키워드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자투리’에서 ‘반려 사물’ 그리고 ‘유기 사물’까지 가게 된 그 과정에 대해 좀 이야기해주세요.

근성 내가 가지고 있기에 버차고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재료들을 남에게 주어 쓰임이 생겼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자투리’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어요. 자칫 쓰레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과 나누니 가치가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반려 사물’은 2014년도쯤 제가 사용했던 단어예요. ‘업사이클링’이란 단어가 막 알려지던 시기고 관련 작업을 몇 번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 오히려 리페어나 수리·수선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지속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물이 본 용도로 최대한 기능하는 게 환경에 더 좋겠더라고요. 사물을 ‘반려’의 대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렇게 ‘반려 사물’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혼자 했었고, 솔직히 실패했어요. 그런데 피스오브피스가 생기면서 여럿이 하면 가능하겠다는 싶어 반려 사물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되었죠. **석희**는 빈티지 사업을 했던 특징이 있었고 **주작**님은 공예를 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 정성을 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잘 맞았어요. 노랑과 **정훈**이 합류하면서 개념적인 것이 보완 되었었고요. 개념이 정리되니까 ‘반려 사물’보다 우리의 의도에 더 맞는 단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전환되었고, 그렇게 많은 대화 끝에 ‘유기 사물’이라는 단어가 탄생했죠.

석희 - 피스오브피스의 초창기 조각, 인테리어 전문가.

주작가 - 박현주의 별명. 작가이자 디자이너 그리고 옛 조각.

정훈 - 농산물을 좋아하는 기획자, 옛 조각.

노랑 맞아요. ‘반려 동물’이란 단어가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우리는 멸종하거나 고치면 충분히 쓰일 수 있는 물건이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지는 행태를 더 조명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반려’보다 더 와닿는 단어가 필요했었고요. 그러다 ‘유기견’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는데, 딱 인 거예요. 이 단어가 이미 문제의식을 포함하고 있어서 더 적합했어요. 그렇게 ‘유기 사물’이란 단어가 만들어졌죠. ‘아깝게 유기 하지 말고 고쳐 쓰자!’를 외치다 보니 ‘서울+아까워+센타’가 되었고.

근성 서울아까워센타가 탄생할 시기에 <메이커스 연-장 도서관>도 시작했죠. 노랑이 제안했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노랑 그때 저는 ‘전환 사회’와 교육에 대한 연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관련하여 리서치하다가 외국 사례로 ‘Tools library(도구 도서관)’에 대해 알게 되었죠. 말 그대로 도구를 빌려주는 건데 그게 ‘Repair cafe(리페어 카페)’와도 이어져서 수선·수리를 알려주는 활동이 이미 외국에선 활발히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사지 말고 고쳐 써야 지속 가능하다’라는 우리 생각에 잘 맞았죠. 그 시기에 또 작가님이 예술가 인력소 같은걸 운영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현대에서 도서관은 책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니까 개념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우리나라에 ‘Makers lab(메이커스 랩)’같은 시도는 있었지만 활발히 운영되는 곳은 많이 없어서 우리가 ‘도서관’이란 개념으로 다시 ‘시작해 보자!’ 하고 제안했죠. 우리는 사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니 도구 말고 연장으로 이름을 붙이자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메이커스 연-장 도서관》이 되었지요.

리페어 카페 - 리페어 카페는 지역 사회에서 일상물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단체이자 행동이다. 낭비와 과소비를 줄이는 플루리 운동의 일부이며 동시에 지역 사회 간의 연대와 압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근성 그런데 그때 코로나랑 맞물리면서 우리가 바란 도서관, 마을회관 같은 역할이 어려워져서 좀 아쉬웠어요. 서울아까워센타도 상황에 맞게 생각하다 보니 퍼포먼스적인 것으로 아이디어가 확장되었고요. 근데 오히려 서울아까워센타는 ‘관찰하는 사람의 마음에 정동이 흐르게 하는 방식’을 택한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던지기보다는 퍼포먼스를 통해 느끼게 하는 방식의 장점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줄기로 뻗어나간 것 중 하나가 《LET’S GO! 잔다빼야 : 지구별 대모험(이하 잔다빼야)》같은 세계관 프로젝트고요.

노랑 네. 피스오브피스가 시즌 2로 접어들면서 작가님이랑 저라는 조각이 잘 협업 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했고요. 작가님은 행동으로 부딪히는 것을 좋아하시고, 저는 말을 좋아하니까(ㅎ). 스토리 만드는 게 재밌어요. 《잔다빼야》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기록’도 프로젝트의 큰 일부였어서 기억에 남아요. 덕분에 SF 소설에 도전해 볼 수 있었고요. 피스오브피스는 늘 조각들이 실험하고 도전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힘들 때도 있지만, 지나 보면 쌓여있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매력...

근성 전 피스오브피스가 계속 시도하는 팀이었으면 좋겠어요. 응용은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제 성향이 그런지 몰라도 계속해서 실험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게 좋아요. 피곤하고 실패할 때도 많지만 어제와 다른 오늘의 일을 하고 있는게 전 좋거든요. 노랑은 어때요?

노랑 저도 창작자이다 보니 그런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비틀고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근데 상대적이기도 해요. 작가님이 워낙 그런 성향이 강하니까 저도 그런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더 굴러보자, 디벨롭 하자...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한 번만 하고 끝내기 너무 아쉬운 프로젝트들이 많았어요. 완성도가 좋아서 더 하지 않는게 아쉬울 때도 있고 조금 더 해보면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쉬울 때도 있고. 물론 다음으로 넘어가도 실은 계속 덧붙여지고 있다는 것도 알죠. 《광주아까워센타》나 《꿈에그린포레스트베르디움사이클로빌(이하 꿈에그린...)》이 예인 것 같아요. 유기사물 구조를 넘어서 작품의 재료로 활용해 본 프로젝트들이잖아요. 아직 시도 초창기다 보니 부족한 점들이 보이기도 했지만 덧붙여지고 있다, 줄기가 뻗어나가고 있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작가님은 어땠어요?

근성 《광주아까워센타》를 하면서 가구들이 버려지는 과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았고 매립지도 가보았는데, 우린 폐기물을 신고 해서 버리면 어떻게든 활용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잖아요. 재활용되는 건 일부고 매립 아니면 소각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가장 좋은 건 재사용이지만. 차선을 생각했을 땐 한 번 더 무언가로 사용되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 와중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에서 옥상에 작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셨고요. 그래서 《꿈에그린...》이 제목은 다르지만 노랑 말 처럼 《서울아까워센타》의 연장선이자 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배웠어요. 우선 유기사물이 대부분 실내용 가구인데, 사실 실외용은 방부목이란 가공된 목재를 써야 하거든요. 실내용은 날씨를 견디기에 내구성이 약하죠. 머리론 알고 있었지만 실제 해보지 않으면 그 정도를 모르는데, 이번에 텃밭이 여름, 겨울, 봄 나눈 걸 지켜보면서 재료로써의 유기사물을 조금 더 알게된 것 같아요. 텃밭이란 건 생과 사가 반복되는 공간이니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박물관 측이 신경 쓸 부분이 많으셨을거예요. 그래도 전시가 끝난 후에도 계속 텃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들었어요. 감사하죠.



노랑 자원 재활용이 앞으로는 필수가 될텐데, 우리도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그 부분의 연구가 시작된 것 같아요. 작가님도 요즘 재료 연구를 더 깊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여러 시도를 해보면서 재료도 작업도 내구성을 높여가면 좋겠어요. 전 《꿈에그린...》이 무엇보다 기획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해요. 동두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대화들이 저 제목 안에 다 담긴 것 같아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기획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근성 서울과 경기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왜 살 곳이 부족한가에 대해 대화 나눴던 걸로 기억해요. 인구는 줄어든다고 하는데 왜 아파트는 더 생기고 그린벨트 지역은 사라지는지 의문이 들었죠. 재밌는 건 그런데도 아파트 이름에는 그린리 불고 포레스트가 붙는다는 거였어요. 자연을 파괴하고 짓지만, 자연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투영된 아파트 이름들이 참 아이러니하죠. 진정 ‘그린’을 가까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아쉬운 건, 텃밭을 아스팔트 위에 만들었으면 그 의미가 더 잘 전달되었을 것 같은데 박물관 옥상은 이미 풀들이 잘 자라는 공간이라 이미지적으로 확 와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이번엔 박물관에 씨앗을 심었지만, 나중에는 본인들의 생활 곳곳에서 ‘그린’을 키워나가셨으면 해요. 그 마음이 전달되었길 바랄 뿐이죠.

노랑 우리가 작년부터 ‘적정 예술’이란 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굴려 가며 고민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꿈에그린...》이 적정 예술의 좋은 예 같아요. 며칠 전 작가님이 ‘적정 예술’이란 말을 뱉어놓고 보니까 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고민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대화에서 확실히 우리는 ‘적정’을 지향하며 작업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정 기술’이 사회 공동체가 가진 정치적, 문화적,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만든 기술이란 뜻인데, 우리야말로 어떤 사람이 조각으로 함께하느냐 어떤 환경이 조각으로 불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춘 고민과 시도를 계속해 나가는 팀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성장을 목표로 불도저와 같이 나아가지만, 우리는 주변을 살피는 ‘적정’한 고민을 지치지 않고 해나가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투리, 유기사물, 브리콜라주, 적정 예술... 계속 말장난 하면서 단어, 생각을 발굴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고 거기서 움직일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성 맞아요. 우리는 아까워하는 마음, 살피고 돌보려는 마음을 전이하는 게 목적이니깐...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적정 예술’하며 시도하고 싶어요.

우리는타인에게내민손이엮어만든연약하고질긴성채속에산다.

우리는 웃고 견뎌한다.
부상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열을 지어 스쳐 간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억과 삶을 빚졌다.
왜냐하면 산다는 것은 삶의 매 순간이 암흑 같은 바다 위를 비추는 금빛임을 아는 것이기에,
고마움을 말할 줄 아는 것이기에.

프랑수아 쉥, 『결국엔 왕국』

SIDE A

한 아이가 있다. 아이에겐 두 개의 집이 있다. 이혼한 부와 모의 집. 아이는 일정 기간 번갈아가며 머무는 집을 두 개의 진영으로 표현한다. 부모는 어른의 선택으로 인해 상처받게 된 아이의 눈치를 본다. 때로는 아이에게서 미워했던 상대방의 모습을 발견해 거리를 두기도 하지만, 곧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한다. 반면 아이는 빠르게 어른이 된다. 부모를 상처 주지 않는 나름의 요령이 생긴다. 기꺼이 어린 척을 하거나, 모범생이 되거나, 상대방의 시린 눈빛을 다 알면서도 애써 웃거나. 아이는 어른이지만 어리숙한 부모를 미소 짓게 할 포획물을 마련해 온다. 학급 반장, 상장, 성적, 대인관계, 맑은 미소. 부모는 자신의 상처를 아이의 노력으로 덮는다. 아이는 상처 입은 어른을 보호한다.

한 어른이 있다. 안전한 나만의 자리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다. 모국어가 통하지 않는 여러 나라를 오가면서 몇 해가 지났다. 때로는 몇몇 자리에서 동지를 틀었다는 안도감에 기뻐하던 나날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아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집으로 돌아왔다. 봄이었다. 어른은 아픈 아빠와 병원 다니는 일을 맡았다. 몇 시간의 운전, 플레이리스트, 대학병원의 지난한 대기시간, 햇살, 열린 차창으로 들어오던 벚꽃잎. 병원에서 돌아와 짧은 산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잠시 해를 즐기기에 참 좋은 날씨였다. 그의 아빠는 잠시 대화를 나누고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곤 했다. 그의 시간이 더 줄어들기 전에 안전한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초조함은 상대방이 내민 손을 잡지 못하도록 했다. 머뭇거렸다. 사랑하던 사람은 떠났고, 부채감이 남았다.

노인들이 있다. 삶의 마지막 거주지로 시설을 선택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에 있는 ‘까사 데 베타니아(베타니아의 집)’라 불리는 양로시설이다. 시설의 작고 낡은 방에는 1인용 침대와 창문, 그리고 작은 책장이 있다. 모두 다른 삶을 견인해 왔을 개인들은 합리성을 근거로 마련된 1.5평 똑같은 네모 속에 산다. 가족이 없는 사람, 있지만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다. 누군가의 눈에는 이들의 삶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있거나 사회가 외치는 성공의 기준에서 멀 수도 있다. 하지만, 노인들의 방에는 삶의 궤적을 유추할 수 있는 작은 물건들이 놓여 있다. 절고 쾌활했던 시절 참가했던 조정대회에서 받은 메달, 부모님의 사진, 꽃병에 꽂혀있는 조화, 어쩌면 손주를 떠올릴 피카츄 인형. 노인들은 인생의 마지막 장소에 무엇을 들지 직접 결정한다. 살아온 시간이 어떤 모양이었던 간에 주체성을 잃지 않는다.



Esther, 2010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사회’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을 뜻한다. 집단을 이루는 조건들은 다양하지만, 아이-성인-노인이라는 시간의 흐름은 공평하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아이와 노인은 사회적 약자로 정의된다. 거칠게 말해서 태어나 성인이 될 때까지의 약 20년, 정년 이후 약 20년, 총 40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다. 신체가 쇠약해져 돌봄이 필요하기 전까지 약 사 오십년 쯤이 성인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아이와 노인의 중간단계에서 성인은 자신의 과거를 반추하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돕거나,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며 뒷세대를 보호할 역할을 가진다. 성인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책무다. 그러나, 어른은 불완전하다.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던져져 깨지고 다치고 무너지고 자신을 재건설하며 어른이 된다. 그들은 아이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남은 시간이 유한한 이와 함께할 수 있는 순간에 머뭇거린다. 그리고 후회한다. 오히려 어른보다 강한 아이, 그리고 주체적인 노인이 있다.

정수경
INSTAGRAM @mee.mee.jung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후, 패션지, 예술지 에디터 생활을 하다 프랑스로 갔다. 파리1대학 미술사학과 학사, 건축사학과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오르세 미술관에서 건축 큐레이팅 분야 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하고, 독립 큐레이터로 글과 전시를 만들었다. 그러다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 인문학베이스 콘텐츠 기획사 ‘후주(턱괴는여자들)’를 창업했다.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내 삶에 묻어 나오면 하는 마음에서 7월 24시간 일하면서 산다. ‘시선은 가장 미시적인 형태의 권력’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는 가를 예민하게 선택하는 중이다.



Casa de Bethania, 2010



Esther's wall, 2010

SIDE B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자란다. 누군가와 비교하며 다른 형태를 가진 나의 가족을 깨닫는다. 친구의 집에 놀러 가서 본 화가에애한 가족의 모습이 연극 같다. 친구의 가족과 아이는 식탁에 앉아 함께 식사하지만, 스포트라이트는 아이에게만 비추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생경하다. 부모를 웃게 하기 위해 어른스러운 척을 하지 않는다. 포획물을 가져오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투명하고 맑아 보인다. 반면, 아이는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중력을 발견한다. 서식 환경의 조건이 다름을 깨달아가며 분노가 쌓인다. 그때, 아이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어른이 손을 내민다.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환경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고 격려한다. 분노의 에너지를 생산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한다. 아이는 아주 작은 조건부터 바꿔보겠다고 다짐한다.

그 어른은 시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살아간다. 상실을 조금 일찍 겪은 사람으로서 다시는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계속해서 찾아 헤매지만, 방식은 바뀌었다. 잃어버린 것들과 잘못 끼운 첫 단추를 계속해서 상기하며 주변을 살핀다. 누군가가 상실감에 괴로워하면 마음이 먼저 아팠던 이로서 손을 내민다. 자신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며, 봄 햇살을 즐긴다. 아빠와 함께 듣던 플레이리스트를 다시 듣고, 그가 남긴 LP를 듣고 싶어 턴테이블을 구매한다. 유한한 시간을 좀 더 느끼고 싶어 한다. 그를 상처 낸 상실은 더 넓은 시야를 선물했다.

노인들 옆에는 한 사진가가 있다. 그는 우연히 베타니아 양로시설을 지나가다 몇몇 노인들과 대화를 시작하게 된 카로우 세지아크(Carol Chediak)다. 벤치에 앉아 햇빛을 쬐는 노인들과 대화하며 그들이 하루에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진가는 즉시 시설 행정실에 찾아가 자신의 취미이자 특기인 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마다 요가 수업이 열렸다. 요가 수업을 듣는 노인들이 처음에는 많지 않았다. 살아오며 여러 이유로 마음에 흉터가 있는 이에게 낯선 누군가의 접근은 두려울 수도 있다. 세지아크는 천천히 그들과 가까워졌다. 요가 수업이 있는 시간보다 먼저 베타니아에 도착해 노인들이 방이 늘어선 복도를 거닐며 인사를 나눴다. 지난 한 주는 잘 보냈는지 안부를 물으며 요가 수업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그렇게 그들은 오 년의 시간 동안 우정을 쌓았다. 노인들은 동그렇게 모여 앉아 세지아크를 따라 몸을 움직였다. 처음에는 단단하게 굳어있던 노인들의 발목이 조금씩 더 땅에 닿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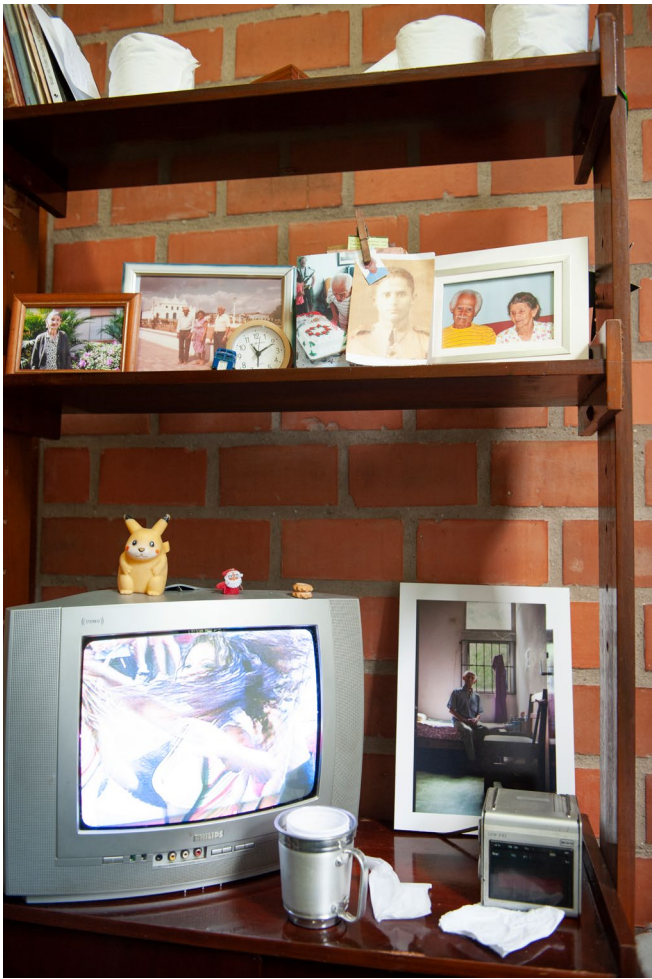
인간의 세상에는 그 어떤 생애주기건 간에 다양한 형태의 아픔이 찾아온다. 학교에서는 잘 가르쳐주지 않는 또 다른 가족의 형태, 부모의 이별, 차이를 발견하며 깨닫게 되는 분노와 결핍,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 불투명한 미래로 인한 두려움, 안전한 내 자리를 갖고 싶다는 불안감, 사회구조적으로 형성되는 외로움과 고립, 가족관계의 단절, 정신과 신체의 노화, 경제적인 어려움 등. 겪게 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손을 내미는 누군가가 있다. 아픔을 먼저 겪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 누군가의 아픔이 곧 나의 일이 될 수 있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럼으로써 기꺼이 누군가의 아픔에 다시금 손을 내밀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를 더한다. 손을 내미는 이에게 어른과 아이, 노인이라는 나이 구분은 없다. 유년 시절의 나를 떠올리며 내미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지켜낼 수도 있고, 죽음의 냄새를 먼저 맡아본 사람이 타인의 아픔을 더 잘 감지할 뿐이다.

아버지의 부재를 통해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된 어른은 또 모국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한 사진가를 만난다. 카로우 세지아크다. 사진가를 통해 베타니아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노인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기 위해 촬영한 사진 연작 <Possibly Here>을 보았다. 자연스러운 표정과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진가를 바라보는 초상 사진에는 오 년간 사진가와 베타니아 노인들이 맺어온 관계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움츠러들기 쉬운 시설이라는 장소와 노년이라는 시간대에서 노인들은 선택을 해나간다. 자신이 처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관계 없이 낯선 이가 제안하는 요가 수업을 듣겠다는 선택, 기꺼이 불편한 몸을 움직이겠다는 선택. 차곡차곡 쌓이는 주체적인 선택들은 스스로 삶을 만들어 간다는 감각과, 열망 또는 다른 건물에 살고 있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누군가와 연결되는 기회를 만든다. 그 시작점에는 노인들의 굳어가는 몸을 움직이게 하고픈 한 사진가의 따뜻한 제안이 있었다. 어른은 보지 못한 그의 아버지의 노년을 베타니아 노인들을 통해 상상한다. 또, 산다는 게 때로는 빗 한 조각 없는 어둠 속을 걷는 일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누군가 다행히 먼저 걸었던 남겨 놓은 발자국을 더듬거리며 넘어지지 않고, 다른 누군가는 웅덩이에 발을 헛디뎠지만 함께 걸던 타인이 내민 손을 잡고 일어난다. 그리고 다시 걷는다. 주변의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다치지 않는지 살핀다.

인간 사회 생태계는 서로에게 내민 여러 손이 쌓이고 덮여 만든 성이다. 때로는 파도 앞에서 힘없이 으스스지는 모래성일지도 모른다. 흩어진 모래알은 해류를 따라 이곳저곳을 누비다가 어느 해안에 다다른다. 그곳에서 다시 서로에게 내미는 손으로 엮인 또 다른 성이 된다. 인간의 관계는 다른 누군가를 웅덩이에서 건져 올린다. 우리는 서로를 먹이고 살린다.



Salvador, 2010



Salvador's wall, 2010

사진: 카로우 세지아크(Carol Chediak)



〈리틀 걸〉

개봉
국가
상영시간
장르
감독
출연
등급

2020
프랑스
85분
다큐멘터리
세바스티앙 리프쥬츠
사샤
12세 관람가

당연함이 상처가 될 때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영화 〈리틀 걸〉은 성별 불쾌감을 느끼는 7살 사샤와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성별 불쾌감은 출생 시 지정된 자신의 신체적인 성별이나 성 역할에 대한 불쾌감을 뜻한다. 사샤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여자라고 여긴다. 그리고 가족들은 모두 사샤가 느끼는 것이 곧 사샤의 성별이라고 지지해 주고, 사샤를 여자아이라고 대한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서류상으로 사샤는 남성이기 때문에 학교나 학원 선생님은 남자아이이기길 강요한다. 이 때문에 사샤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된다. 사샤의 가족은 사샤의 주변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아직 어린 사샤가 우는 모습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사샤를 사랑하는 그녀의 가족들은 사샤를 위해 기꺼이 싸우겠노라고 말한다.

사샤의 이야기는 다소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태어난 생물학적 성별을 이유로 성 역할이 부여된다. 그리고 그건 아주 ‘당연하게’ 여겨진다. 여자아이는 인형 놀이를 하고, 남자아이는 공 놀이를 한다. 이 역할에서 벗어나면 조금 벌난 애가 되기 마련이다. 유년시절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다. 성인이 되어도 여자는 ‘당연히’ 집에서 살릴할 테니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곤 한다.

고백하자면, 매일매일 뉴스를 장식하는 혐오 범죄, 장애인 차별, 기후 위기를 보면 우리의 싸움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게 느껴질 때가 많다. ‘그냥 차라리 모두 망해 버리라지’란 마음이 들 뿐이다. 그럴 때마다 〈리틀 걸〉처럼 ‘사랑’을 담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내게 말해주다. 쉽게 절망하지 말라고, 얼어붙지 말라고, 그럼에도 사람으로 함께 싸우라고.

포스터 출처: Music Box Films

오늘 이 계절의 레시피
태국 현지보다 맛있는
참외쌈뎀

저는 외국 요리를 우리나라 제철 재료로 재현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태국 요리 ‘쌈뎀’의 재료 파파야를 참외로 대체해서 만들어보았어요. 파파야에 비해서 단맛이 강한 참외 덕분에 설날도 덜 들어가고 재료 간의 조합이 조화로워 훨씬 더 근사한 요리가 탄생했어요.

2인분
참외 2개 | 당근 1/8개 | 방울토마토 5개 | 가나시용 고수
양념: 땅콩 5개 | 페퍼론치노 3개 | 다진 마늘 1작은술 | 피시소스 1큰술 |
설탕 1/2큰술 | 라임즙 혹은 레몬즙 1/2큰술
피시소스가 없다면 액젓 종류를 사용해주세요.



- 1. 참외와 당근은 흐르는 물에 잘 씻어 껍질을 제거하고, 약 3mm 두께로 얇게 채 썬다.*
- 2.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르고, 일반 토마토의 경우 웨지 모양으로 8등분 한다.**
- 3. 볼에 양념의 재료를 모두 넣고 절구에 뺨는다.***
- 4. 3에 참외, 당근, 토마토를 넣고 잘 섞는다.***
- 5. 고수를 다져서 올려 마무리한다.

※참외는 노란 껍질을 남겨두면 맛있게 보여요. 당근과 참외는 같은 두께로 썰는 것이 보기에 좋습니다.
※일반 토마토의 경우 1/2개 사용하세요.
※※절구가 없다면 땅콩과 페퍼론치노를 다져서 액체류에 섞어주세요.
※※※토마토에서즙이 나오도록 살짝 짓이겨주면 좋습니다.

※본 기사는 저자의 동의를 받아「오늘 이 계절을 사랑해」(2023. 진민섭 지음, 세락선 사진, 세미블론)를 발췌/편집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진민섭 Instagram @huam3house

겨울엔 방어, 여름엔 초당옥수수를 놓치면 큰일 나는, 먹는 데 진심인 사람. 재료에 예민한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권숙수’에서 근무하며 사계절 식재료에 대한 감각을 키웠고, 때마다 제철 재료 챙겨 먹는 즐거움을 깨달았다. 이후 백화점 식품팀, 푸드 스타트업을 거치고, 직전까지 브랜드 에이전시에서 F&B 콘텐츠를 만들었다. 취미는 집 앞 슈퍼에서 계절에 따라 바뀌는 식재료 구경하기. 특기는 "이건 꼭 먹어야 해!"하며 주변 사람들 집으로 초대하기. '제철 재료 전도사'를 자처하며 계절 식재료를 탐구하는 유튜브 채널 〈후암동삼총집〉을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는 「오늘 이 계절을 사랑해」가 있다.

타로인류학

4부: 달이 차오른다, 가자



이후석
Instagram @sir_hoo

서물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5년차 건축 디자이너/타로리스트.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VR/AR 프리랜서로도 활동하고 있다. 누구보다도 타로에 진심이지만 타로를 신봉하진 않는다. 다만, 타로를 앞에 두고 오가는 대화와 생각의 힘을 믿는다.

충분합니다. 게다가 타로카드라는 신비한 느낌과도 어딘가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게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타로에서 ‘달’ 카드와 ‘별’ 카드는 결코 달을 수 없는 이상, 그리고 이를 단념치 못하고 쫓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비극적인 카드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달과 별을 바라보며 선망과 동경을 노래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들을 붙잡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이 아니라 이를 수 있을 것만 같은 눈앞의 무언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나 꿈이라면 어떨까요? 쫓아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나 소망과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현재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언가에 홀린

편집실 PLAYLIST

이곳은 영웅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

1.민족요 (ENTRANCE) — 림킵(김예림)

2.삶과 잠과 언니와 나 — 이람

3.연약하다는 것은 약하다는 것이 아냐 — 장혜영

4.삶은 여행 — 이상은

5.Tilted — Offing

6.모두 주세요 — 신해경

7.모두 다 사랑하리 — 송골매

8.사람은 — 전찬준

9.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 나이트오프(Night Off)

10.LOVE YA! — 혁오(HYUKOH)

11.이곳은 영웅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 — 향니

12.Antifreeze — 검정치마

편집실 PLAYLIST는 유튜브 채널 ‘어박T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듯 선망하는 대상을 마냥 쫓아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타로는 이것을 허황된 욕망, 즉 허영이라고 경고합니다. 현재를 객관화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나태함이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에게 취하는 이기적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특히 ‘달’이라는 소재를 통해 여러 카드에서 등장합니다. 양자택일의 순간에 현실적이고 냉철한 답안 A와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답안 B 중에서,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너무나 매력적인 답안 B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달’입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해결에 도움은 안 되지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조언 B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바로 ‘달’입니다. 이렇게 보면 달이 마치 요즘 회자되는 MBTI의 ‘F’를 담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18세기부터 이미 사람들이 T와 F를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표현하고 있었다는 점이 재밌지 않나요?



사실 타로에서 이야기하는 F. 아니 ‘달’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부정적인 의미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타로를 보는 일 자체가 꽤 낭만에 기대어 보는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카드를 풀이해 주는 입장에서 ‘현재의 시대상에서도 달에 대한 의미를 무겁게 가져가야 하나’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은 삶이 무언가에 귀속된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러한 삶의 태도를 지향하는 분위기도 아니기 때문에, 몇 번이고 직업을 바꾼다거나, 빠른 은퇴를 하고 여행만 다닌다거나, 혹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썽요, 여유는 생겼을지언정 어쩐지 세상은 타로가 처음 생겨난 때보다 지금이 더 혼란한 듯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을 T와 F로 나누어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MBTI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사람들은 서로를 편 가르고 극단으로 몰아붙여

대립합니다. 알고리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도파민과 확증편향을 주입하고 있고, 동시에 세상은 계속해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달을 쫓는 행위 자체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듯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은 타인의 길 위에 놓인 ‘달’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와 생각하는 바, 행동하는 바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명확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그것이 타인에게도 동등한 가치가 될 수는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타로카드의 원류로 여겨지는 이집트 신화에서는 달과 별이 ‘지식’, ‘운명’, ‘질서’, ‘아름다움’ 등을 뜻합니다. 분명 이집트 신화의 내용을 차용해서 타로카드의 도안과 의미를 만들었음에도 전혀 다른 뜻으로 뒤바뀌어 표현되었다는 점이 참 신기하고도 이상한 지점입니다. 이로써 다시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사실 하나만이 밤하늘의 달처럼 우리에게 선명한 듯 보이네요.

“뜨개의 효능”

◆ 정신 집중
한 코씩 뜨다보면 찾게 되는 도둑맞은 집중력

◆ 자아 성찰
어쩌다 편물이 이렇게 되었나 끝없는 성찰의 시간

◆ 분노 조절
열받은 현생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 밖의 효능은 인스타그램 @cowadan_official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이미지 제작: 이지수

정민씨요? 내가 아는 레인보우증 최고였어요

인터뷰어: 강연섭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학예연구사)
인터뷰이: 김정민 (건축가, 도시연구자, 그래픽디자이너, 에세이스트, 서울퀴어컬렉티브 작가)

김정민은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 92년생 김정민입니다. **#건축가**이기도 하고, **#그래픽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책을 썼어요. **#에세이스트**라고도 할 수 있겠고, **#서울퀴어컬렉티브(Seoul Queer Collective)**라는 이름으로 작가 활동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도시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것저것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관심 분야를 어떻게든 결과물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가진 정체성과 사회적 관심을 건축, 설치, 집필, 디자인 등 다양한 방식의 작업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작업 형식과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위트와 귀여움은 꼭 지키시는 것 같던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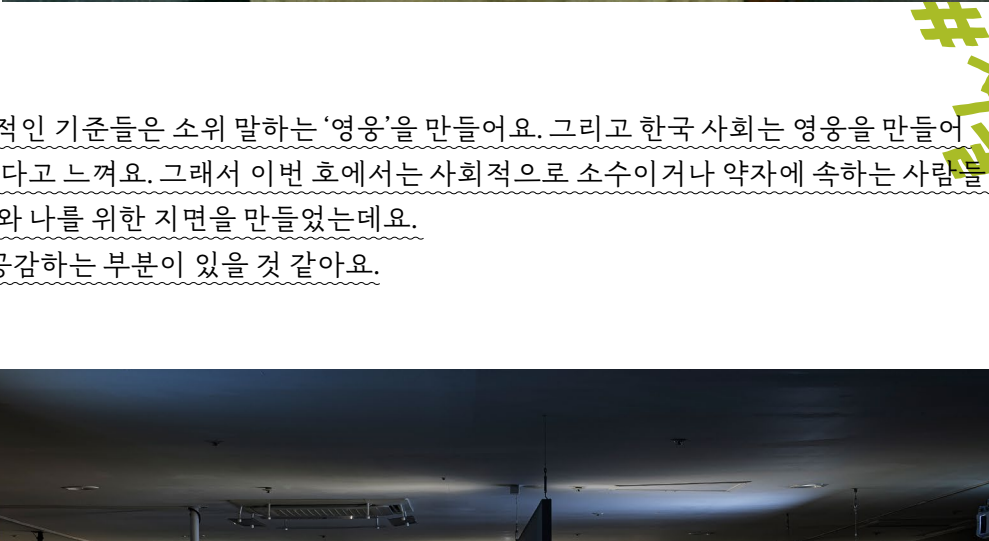
일단 결과물에 '귀여움' 포인트를 넣으려고 해요. 중요하죠. 귀여움의 정서에 대한 논문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귀여움은 강력한 힘이에요. '잘생김', '예쁨', '멋짐'에는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그려지는 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귀여움은 각자가 느끼는 포인트가 다른 거죠. 못생겨도 귀여울 수 있어요. 귀여움은 모든 걸 이기는 힘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제가 만드는 작업물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요. 건축으로 예를 들면, 건축가가 30%, 건축주가 30%, 시공사가 30%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사랑이 30%, 그래서 도합 120%의 일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나의 작업이다, 나 혼자만의 결과물이다'라며 밑에 "Copyright. 김정민" 이렇게 적기에는 좀 힘든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없는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책을 쓰거나 작가로서 작업을 할 때는 조금 달라야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독자나 관객은 있지만, 그들이 클라이언트는 아니잖아요. 보다 자유롭게 내가 생각하는 것, 혹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것도 혼자 하는 일은 절대 아니에요. 책이 한 권 나오는데도 여러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고 편집자가 문문을 해주기도 하니까요. 과연 '100%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안티-프리즈』 마지막 호의 제목이 「이곳은 영웅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세속적인 기준들은 소위 말하는 '영웅'을 만들어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영웅을 만들어 내는 것대를 들이대며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타인을 몰아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으로 소수이거나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각자가 안정적으로 딛고 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지키자는 의미에서 그들과 우리와 나를 위한 지면을 만들었는데요. 서울퀴어컬렉티브(Seoul Queer Collective, 이하 SQC) 활동의 골자가 이번 호와 분명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해시태그 2020》
- 서울퀴어컬렉티브(SQC)》,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20

서울퀴어컬렉티브(SQC)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퀴어 흔적들을 기록하고 아카이브 해보자는 목적으로 시작했어요. 저희는 '지역'과 '공간'을 기반으로 작업한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해시태그 전시였고, 종로3가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과정에서 밀려난 소수자들의 문제에 주목했어요. 종로3가는 누군가에게는 게이들의 공간이라 불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들을 내쫓았다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전통적으로 노인들이 많은 공간이기도 해요. 낙원상가가 있고, 그 밑에 지하상가도 있고, 그 옆에 바둑 두는 곳도 있고, 동시에 쪽방촌이 존재해요. 소위 말하는 멜팅팟(Melting pot)인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의 도시 계획은 종로3가의 성소수자,



전시 《프로젝트 해시태그 2020》 전경, 사진:타벌

노인, 쪽방촌 사람들 등등 모두를 배제하고 무조건 도시재생을 해야된다는 거예요. '카드 사용 기록'과 같은 것 으로 도시의 관광 활성 정도를 판단하는데, 종로3가는 현금을 많이 쓰는 지역이기 때문에 카드 기록이 안 나오니까 되게 쇠퇴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너무나 많은 미시적인 역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개발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런 미시적인 역사들을 아카이빙하는 작업으로 전시했어요. 그들의 인터뷰, 종로3가의 연대표,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직접 전시장에서 텍스트 음성, 시각적으로 구현해서 관람객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만나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죠.

《프릭 플래그 플라이(FREAK FLAG FLY)》,
탈영역 우정국, 2022

다음으로는, 이번에는 물리적 공간보다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장면들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위의 장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제를 위해서 어떤 시위가 열리면, 그곳에 정말 많은 깃발이 등장해요. A, A', a, a'. 이렇게 A와 직접 관련 있는 단체들도 오지만, B, C, d, e, F와 같이 정말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단체들이 함께 깃발을 들고 온단 말이지요. 저희는 그것에 집중했어요. '교차성' 인거죠. 내가 트랜스젠더이면서 장애인일 수도 있고, 내가 남성이지만 페미니스트일 수도 있고, 내가 사실 엄청난 엘지비티(LGBT) 인권 운동가인데 지구를 위한 비건 실천은 전혀 안 할 수도 있어요. 수많은 정체성이 교차 되고 응집된 공간이 그 시위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의 대표적인 오브제로 '깃발'이라는 게 있었고, 탈영역 우정국 전시실에 총 42개의 깃발을 전시했어요. 특히 42개 참여단체의 성격과 정체성에 따라 서로 어떤 교차성을 보여주는지 고려하며 작업을 진행했어요.



전시 《FREAK FLAG FLY》 전경, 사진:송유섭

두 전시 모두 다양한 정체성에 주목하고,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수집하여 데이터화, 시각화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서울퀴어컬렉티브(SQC)의 메시지를 가장 여러분다운 언어로 전달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과 탈영역 우정국은 성격은 다르다고 해도 미술계에서는 어떤 권위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누군가는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SQC가 주목하는 콘텐츠의 성격이 그렇지 않은데, 이것을 이 권위적인 공간으로 끌고 들어와 선보인다는 점을요. 분명 이 지점에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미술계에서 '전시'라는 형식으로 권위성을 가진 공간에 들어간 전 전략적인 접근이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어쨌든 소수자의 목소리잖아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소수자들의 미시적인 역사들을 이 권위적인 공간에 박제를 해버리자. 퀴어라는 이름을 가진 작가의 작업을 실어보자. 그런 마음이었죠. 당연히 우리가 최초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은영 작가 같은 경우 올해의 작가상을



도시 《타자 종로3가 종로3가 타자》, 사진:타벌

받기도 했고, 이번에 이강승 작가 같은 경우에도 퀴어 작업을 하시죠. 어쨌든 그 작가들과 같은 결로서, 퀴어 작업을 그냥 박제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연히 미술관뿐만 아니라 저희는 아주 여러 공간에서 다양한 작업을 해요. 청년청같은 곳에서 세미나도 진행하고,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 꼭 미술관 전시를 위한 작업으로만 보지 않고, 그렇게만 하지 않으려는 게 방침이기도 해요.

화제작이죠? 책 『즐거운 남의 집: 전월세의 기쁨과 슬픔』을 출간하셨어요. 팟캐스트계의 유퀴트라는 <영혼의 노숙자>(293화)에서 또 활약을 해주시고, 웃기고 슬프고 다 하는데요. 2030 세대의 주구 불안정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임에도, 대상화하여 주목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인종, 종교, 성, 장애 등과 같이 잘 알려진 개념들과 달리, '남의 집'에 사는 2030 세대'를 범주화하고 그들의 생각과 삶을 들여다볼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처음에 공동 저자인 이윤석 작가의 유튜브 채널 ‘서울은 이상한 도시’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윤석 작가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그 과정이 참 힘들다, 그렇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각자가 자기만의 집 사용법, ‘일상의 발명품’이라고 저희는 칭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집에 녹아있지 않을까 얘기를 하다가 윤석 작가가 유튜브 기록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집이 저의 집 편이었고요. 그것을 계기로 세 번째 집부터 함께 촬영하게 됐어요. 유튜브를 흥미롭게 보시고 연락을 주셔서 책을 쓰게 되었는데, 사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내 경험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우선 남의 집, 전월세에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아범** 같은 일,

- 전세라고 치면 집주인이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보증금을 받고, 그 보증금을 집주인이 다시 나한테 주면, 내가 받아서 새로운 집주인에게 주고 그럼 새 집주인도 나가는 사람한테 보증금을 댄가지고 실제 공간에서 빠져나가야만 내가 이사가 가능한 일. 그래서 오전과 오후 언제 들어오고 나갈 거냐를 맞추고, 내 동장에는 2억이라는 돈이 1초 정도 어우르고 -

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의 집에 살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전월세에 산다’라는 이유로 완성되지 못한, 미완의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현실 사회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나의 집을 그렇게까지 갖고 싶지 않은 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나의 집을 갖거나, 전월세에 살거나 하는 것은 자/타의에 의한 선택의 문제인데 그걸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거부감이 들죠. 세상은 다양한 경험을 하라고 말해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세상 보는 눈을 넓히라고. 그런데 ‘경험만’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양한 삶 속에서 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세상에 오랫동안 앉아서 맛을 음미하거나 그 세상에 드러눕는 것은 허락되지 않아요.

도시라는 게 ‘거름망으로 걸러진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도저히 서로 겹치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곳인데, 억지로 구분하고 나누고 하다 보니까 노키즈존(No Kids Zone)도 생기고, 아파트도 임대, 분양 아파트 나눠서 디자인도 색깔도 다르게 한다거나, 이렇게 된 사회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건 사실 ‘다름’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지, 달라, 달라, 달라! 이렇게 규정지으려고 다름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름’은 그냥 ‘알아가는’ 것이죠. 이 책은 크게 ‘도시’와 ‘동네’라는 파트로 나뉘어 쓰였는데, 도시 파트에서 제가 주로 말하고 싶었던 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계속 구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다름’을 계속해서 체화하고 그것을 그냥 알아가는 것, 그 감각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체성은 사회적 다수에 속하기도 하고, 어떤 정체성은 사회적 소수에 속하기도 해요. 다수의 기준에 적합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는 것은 쉽고 편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이게 옳은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소수에 속하는 정체성들을 주목하고 배려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알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 소중한 가족들을 생각하면” 혹은 “모두가 소수자성이 있으니까”라고들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군대에서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게,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들으니, 자기 엄마, 여동생, 여자친구를 생각하면 당연히 지지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이 이유라면 계속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그 말은 곧, ‘그에게 어머니, 여동생, 여자친구와 같은 존재가 없으면 페미니즘을 지지하지 않았겠다’가 되는 거잖아요. 또 ‘너도 소수자성이 있잖아. 너는 남자지만 미국에선 너는 그냥 아시안일 뿐이야. 그러니 페미니즘을 배워야 해’.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백인 남성들은 아무것도 안 배워도 되는 존재인가?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따라서 주변에 대한 공감, 또는 상대적 소수자성에 대한 역지사지를 넘어서, 인류 보편의 가치 레벨의 어떤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소수자성을 가지건, 얼마나 많은 교차성을 가지건, 그 모든 정체성의 이전에 어쨌든 인간이라는 존재로 존엄성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왜 소수자성을 배려해야 하나요?’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차이를 탐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거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공감해요. 서울퀴어컬렉티브(SQC)의 활동 중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관람객들에게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소수자성을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조각을 걸어낸 객관적인 데이터, 수치 그리고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담히 틀어놓기. 그래서 좋았어요. 소수자의 공간을 침해하지 않고, 10평의 땅이 있으면 10명의

사람이 각자 한 평씩 나눠 가지는 것처럼요. 그 10명에는 여성, 남성, 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누군가를 혐오하고 몰아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가 자기 공간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혹시 현재 주목하는 대상이 있거나, 다음 프로젝트의 방향을 정했나요?

현재 성소수자, 그러니까 남성 게이는 어플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옛날에는 어떠한 특정 지역에서만 만났어요. 왜냐하면 성소수자라는 어떤 인식표나 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코드를 찍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공간에서 은밀하게 모이거나 했죠. 그런데 디지털과 어플의 발달로 이제는 내가 그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가 된 거예요.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공간이 된다는 거, 이게 재밌다고 느껴졌어요. 내가 그 공간의 중심에 항상 있는 거죠. 디지털과 어플의 발달로 인해 성소수자의 공간이, 남성 동성애자의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이 현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논문 주제로 삼고 연구하는 중이에요.

또 2023년에 이경민 디자이너의 한국 퀴어 연속 간행물 아카이브 전시의 디자인 작업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부분이 있어요. 작가로서가 아니라, 디자이너로서의 나는 어떻게 퀴어 정체성을 녹일 수 있을까? 그래서 퀴어 작가들의 전시 공간을 디자인하는 콜라보 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싶어요. 관람객들에게 작가의 정체성을 녹인 작업을 공간이나 그래픽으로 풀어내어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디자이너로서 퀴어성을 녹일 수 있는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전시 《FREAK FLAG FLY》전경, 사진:송유섭